

감귤 유통혁신 방안

현 홍 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I. 머리말

- 제주의 감귤산업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체농업인의 86%가 재배하고 농업 생산액의 51%를 점유하고 있어 제주도민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산업임
- 그러나 WTO/DDA 농업협상 및 FTA 확산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어느때 보다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감귤 생산과 유통혁신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 유통환경의 변화속에서 감귤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비자 중심의 접근에 의한 유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감귤농업의 환경 여건】

<p>강점(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 무공해의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업 적지 ◆ 기술 집약적인 농법 ◆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철 발작물 재배 유리 ◆ 동북아 물류중심지역 입지 	<p>약점(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수입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확대시 감귤이 최대피해 품목으로 전망 ◆ 육·해상 복합 운송으로 물류비 부담 가중 ◆ 감귤 대체작목 개발 부진
<p>기회(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치도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자유도시 건설⇒ 외국인 유동인구 증가 ◆ 일본 및 중국의 고급농산물 수요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전략 품목 육성 	<p>위협(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렌지 수입증가로 감귤시장 잠식 ◆ 중국의 WTO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소류 수입급증으로 월동 채소류 시장 잠식 ◆ DDA 농업 협상

II. 감귤산업의 현황

1. 감귤산업의 국내외 여건

□ 세계과실류 생산 및 교역량 ('03기준)

○ 세계 주요 과실류 생산량 : 약 349,327천톤

감귤류	바나나	포도	사과	망고	배	파인애플
103,821	69,286	60,883	57,967	25,563	17,191	14,616

○ 세계 주요 과실 교역량

- 감귤류 : 21,403천톤(수입 10,529, 수출 10,874)
- 바나나 : 29,909천톤(수입 14,888, 수출 15,021)
- 포 도 : 6,482천톤(수입 2,795, 수출 3,687)
- 사 과 : 12,164천톤(수입 5,960, 수출 6,204)

* 오렌지의 세계교역량은 WTO, FTA 등 개방화로 증가 추세 임

□ 과실 교역 여건 및 전망

-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농업선진국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10%이하로 이미 공
산품 수준으로 까지 관세가 인하되어 있어 우리와 비교 할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 확보
- 우리나라의 농산물 평균 관세율은 OECD 국가의 36%보다 높은 62%로 일본의 12%보다 훨씬 높음

<우리나라 주요 고관세 품목 현황>

구 분	품 목 수	비 고
300%이상	25개	쌀, 마늘(360%), 참깨(630%), 쌀보리(300%), 겉보리(324%)
250%이상	31개	고추(270%)
200%이상	39개	수삼(223%), 밤(219%)
100%이상	47개	분유(176%), 감귤(144%)

< 향후 교역 전망 >

- 현재 주요 6대과일은 식물방역법에 의해 수입제한
 - 주요관심 병해충 : 지중해과실파리,코드린나방
 - 포도,오렌지는 일부국가에서 수입
-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 발효

특 집 (2)

- '06년 하반기부터는 칠레산 오렌지가 수입되고 있어 오렌지 수입량 증가로 감귤시장 잠식 우려
- 한·미 FTA 협상 등 앞으로 FTA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적인 관세인하와 수입금지 해제요청 등 개방압력 강해질 전망

【 주요과실의 수입금지지역 및 병해충 】

품 목	수입금지지역	주요관심 금지 병해충
감 귤	미국(하와이, 텍사스, 플로리다주 제외) 일본(규슈섬 이남 제외) 뉴질랜드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귤 과실파리류
사 과 , 배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배화상병, 사과 빛자루병 코드린나방
단 감	일본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포 도	미국(하와이, 텍사스 제외) 일본, 칠레, 뉴질랜드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복 승 아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코드린나방 복숭아 뽕나방
감	미국(하와이, 텍사스, 플로리다주 제외) 일본(규슈섬 이남 제외) 뉴질랜드를 제외한 세계 전지역	지중해과실파리

* 자료: 국립식물검역소

□ 국내여건 변화

- 국내 과실 생산량 증가
- 국내 주요과실 (감귤, 사과, 배, 단감, 포도, 복숭아 등)의 연간 생산량은 230만톤 수준

《국내과일 연도별 생산현황》

(단위 : 천톤)

구 분	계	감 귤	사 과	배	단 감	포 도	복숭아
1995	2,149.6	614.8	715.9	178.3	194.6	316.4	129.4
2000	2,249.5	563.4	488.9	324.2	227.4	475.6	170.0
2002	2,417.5	788.7	433.1	386.3	199.9	422.0	187.5
2003	2,055.5	645.5	365	317.0	163.0	376.0	189.0
2004	2,181.0	595.6	357.2	451.9	195.4	367.9	200.5
2005	2,318.8	662	367.5	443.3	235.9	381.4	223.7
구성비(%)	100.0	28.6	15.9	19.1	10.2	16.5	9.7

주) 시도별 과실생산량(농림부.제주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딸기 등 과채류 생산량 증가로 감귤시장 잠식
 - 연간 생산량(만톤) : 딸기 20, 수박 90, 참외 20, 토마토 44 수준
-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 외국산 신선과일 수입량 증가로 국내 과일 시장 잠식

연 도 별	'97년	'99년	'03년	'04년	'05년
◆ 오렌지	: 38천톤	→ 31	→ 145	→ 155	→ 123
◆ 포도	: 9천톤	→ 6	→ 11	→ 10	→ 13
◆ 키위	: 8천톤	→ 4	→ 13	→ 23	→ 27
◆ 바나나	: 134천톤	→ 168	→ 221	→ 210	→ 254

2. 감귤산업의 현황 ('04년 기준)

□ 재배 현황

- 재배농가 : 31,233농가
 - 전체농가 36,366농가의 86%
- 재배면적 : 22,048ha (전체 경지면적 58,951ha의 37%)

노 지 재 배			하 우 스 재 배				계
극조생	조생	보통	하우스	한라봉	비가림	만감류	
1,539ha	17,452	734	430	1,101	430	362	22,048

○ 생 산 량 : 596천톤

(단위:톤)

극조생	조 생	보 통	하우스	한라봉	비가림	만감류	계
36,018	483,162	17,488	25,903	13,363	11,368	8,289	595,591

※ 노지재배 감귤 생산량이 536,668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0% 차지

□ 감귤 조수입 : 6,105억원 (GRDP의 8.7%)

- 농업 조수입의 1조 1,871억원의 51% 차지

(단위: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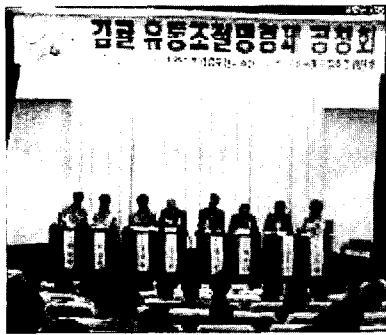
류 별	과수류	채소류	식량작물	특용작물	화훼류	계
조수입 (억원)	6,279	2,711	1,837	518	526	11,871

(과수류 6,279억원 : 감귤 6,105. 기타 174)

※ 주요 작물 조수입 비교('04년 기준)

구 분	감 굴	감 자	마 늘	화 훼	당 근	무
재배면적(ha)	22,048	5,983	3,861	433	884	3,046
조수입(억원)	6,105	1,294	1,032	526	262	184
순 위	1	2	3	4	5	6

3. 감굴산업의 문제점



생산구조적 문제

- ◆ 해거리 현상 등 불규칙한 생산량으로 수급 불안정
- ◆ 경영규모의 영세로 경영효율성 저하
- ◆ 신제품 육성기반 취약

유통구조적 문제

- ◆ 당·산도 선별기 미보급 상품차별화 지남
- ◆ 출하조직 체계화 미흡
- ◆ 육·해상 복합 운송으로 물류비 부담 과중
- ◆ 브랜드 난립으로 균질의 상품 규모화 미흡

시장개방확대에 따른 수급 문제

- ◆ 오렌지 수입량 증가로 감굴시장 잠식
- ◆ FTA 확대시 감굴이 최대피해 품목으로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 생산구조적 문제

- 해거리 현상 등 불규칙한 생산량으로 수급불안정
 - '04년도 2,500ha 폐원 등 재배면적을 감축하였으나 열매숙기, 1/2간벌 등 적정생산 노력 없이는 과잉생산 구조
 - 면적 : ('03년) 24,560ha ⇒ ('04년) 22,048 ⇒ ('05년) 21,430
 - 생산량 : ('03년) 632천톤 ⇒ ('04년) 584 ⇒ ('05년) 638
- 경영규모의 영세로 경영 효율성 저하
 - 농가평균 재배면적 : 0.7ha (1ha미만 농가 80% 차지)
- 경험적 관행적 재배방식 고수

- 품질 향상보다는 수량 위주의 생산 관념으로 시장변화 대응 미흡
- 신품종 육성기반 취약
 - 난지농업연구소 감귤과에서 감귤신품종 육종 담당
 - '91년 농촌진흥청 과수연구소 산하 제주감귤연구소로 설립
 - '02년 난지농업연구소 감귤과로 통합됨에 따라 인력 등 신품종 육종을 위한 기반 취약한 실정임
- * 연구인력 : 당초 33명이었으나 감귤과로 통폐합되면서 현재 16명임

▶유통구조적 문제

- 당·산도 선별 선과기 보급이 안돼 품질등급에 의한 출하 지난
 - 대부분 크기 및 육안에 의한 선별로 상품차별화 미흡
 - ☞ 소비자는 모든 감귤을 동일 상품으로 인식, 가격 경쟁력 저하
- 상인단체, 영농법인, 작목반 단위의 개별출하형태로 출하조절 지난
 - 선과장 : 734개소 (농협 245, 감협 170, 상인 298, 법인 21)
 - 작목반 : 568개반 (농협 309, 감협 259)
-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육·해상 복합운송으로 물류비 부담 과중 및 출하체계 복잡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2차 가공인프라 부족
 - 현재 : 감귤쥬스생산시설, 감귤초코렛 공장 등 가동
 - ⇒ 음료, 과자, 기능성식품 등 개발 가공시설 부족
- 각 조합별 브랜드 사용으로 균질의 상품 규모화 미흡

【조합별 브랜드 현황】

구 분	제주시	조 천	서귀포	중 문	효 돈	남 원	위 미	한 립
브랜드	미도미	아침하늘	청정오름	황제	다우령	곶들락	문주왕	한수플

▶시장개방확대에 따른 수급 및 전망

- 오렌지등 신선과실 수입량 급증으로 감귤시장 잠식 확산
 - 오렌지 : 15천톤 ('95) ⇒ 146 ('03년) ⇒ 155 ('04년) ⇒ 162 ('05년)

【감귤 조수입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출범 ('95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 1,242억원 ⇒ ('90) 3,151억원 ⇒ ('94) 5,521억원 ※ '85년도 제주지역 총생산액(GRDP)는 7,384억원으로 감귤이 16.8% 차지 ◆ WTO 출범 ('95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4,335억원 ⇒ ('97) 4,008 ⇒ ('99) 3,257 ⇒ ('02) 3,165
--

- FTA 확대시 과일 품목중 감귤이 최대 피해품목으로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감귤 가격 전망

- ① FTA 이행으로 관세완전 철폐시 가격 : 5년후 392원/Kg당
⇒ 현행관세가 유지 될 경우 5년후 가격 : 937원/Kg당
- ② 10년후 감귤가격 : 현행관세 유지시 937원/Kg당
⇒ 관세 완전철폐시 392원/Kg당

4.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자구노력

- 감귤 안정생산 기반조성 노력 추진
 - 감귤 생산구조(재배면적) 조정 : ('00) 25,796ha ⇒ ('04년) 22,048ha ⇒ ('05년) 21,430ha
 - '00 ~'05년 1/2간벌사업 추진 : 11,828ha (5,914ha 폐원효과)
 - 고품질 생산 시설재배 확대 : ('95) 425ha ⇒ ('05) 2,349ha
 - 고품질 감귤 생산 품종개량 ('95 ~ '05) : 2,500ha

- 감귤선과장 통·폐합 : 소규모 선과장 133개소 감축
 - 감귤선과장 : ('00) 867개소 ⇒ ('04년) 734개소

- 감귤진흥기금 조성, 제주지방개발공사 감귤가공에 투자
 - 조성액('91 ~ '96) : 67억원 (농가 26억원, 농협 41억원)

- 감귤유통조절명령제 '03년도부터 4년 연속 시행중 ⇒ '04년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
 - 고품질감귤 공급 및 감귤의 수급불안을 해소
 - 실시효과 ⇨ 일정규격 이외 출하금지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단위:원/10 Kg)

'05년산 (A)	'04년산 (B)	'03년산 (C)	4개년 평균(D) ('99 ~'02)	대 비		
				A/B	A/C	A/D
12,133	12,743	9,075	6,221	95	134	195

- 제주도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 (제7장·40조·부칙)
 - 농산물 중 전국 최초 단일품목 조례 제정 운영('97. 1. 15)
 - 상품감귤 기준, 출하연합회 설치, 비상품감귤의 단속기준 등

- '03년도부터 감귤자조금 사업 추진
 - 노지감귤 계통출하금액의 0.5% 해당액을 농가와 농협이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자율조정

- ('03년) 1,619백만원 ⇒ ('04년) 2,060백만원 ⇒ ('05년) 1,435백만원

○ 주요 추진 사업

- 소비촉진 TV 홍보, 국내외 시장개척 활동, 감귤사랑 마라톤대회
- 감귤 유통명령제 이행경비 지원 및 감귤농가 교육 등
- 노지감귤 1.9번과 시장격리 지원사업

□ 과실계약출하사업을 통한 수급조절

⇒ 감귤생육기에 농가와 산지농협간에 출하계약 체결, 수확후 출하된 가격이 계약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가격의 일부를 보전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 및 수급조절 도모

○ 사업추진 물량

구 분	농가수 (명)	약정물량 (톤)	금 액 (백만원)	비 고
'06년	2,727	55,089	44,083	
'05년	2,422	46,941	32,977	

○ 사업물량 전량 계통출하로 출하조절 및 산지가격 지지

□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출하연합회 및 연구단 구성 운영

-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구성 운영('97. 5. 7) : 32기관 · 39명
 - 출하조절 및 도매시장별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 조사, 농가 제공
- 감귤경쟁력강화혁신연구단 구성 운영 ('03. 3. 25) : 1자문 · 4분과 · 106명
 -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개발, 제도 개선, 연구활동 등 전개

Ⅲ. 감귤 처리현황 및 문제점

1. 감귤 처리현황

□ 총괄

(단위:톤)

구 분	생산량	상품용 출하			가공용	기 타
		농 협	일반	계		
'05년산	661,992	258,220 (52%)	239,799 (48%)	498,019 (100%)	125,345	38,628
'04년산	595,591	241,268 (56%)	189,313 (44%)	430,581 (100%)	100,517	64,493

(※ 처리실적 : 붙임 자료 참조)

- 총생산량 중 상품출하 : ('04) 72% ⇒ ('05) 75%
- 상품용 감귤 농협 계통출하 : ('04) 56% ⇒ ('05) 52%

2. 노지감귤 유통실태

□ 처리 현황 ⇒ '05년산의 경우 상품용 출하 비율은 74%임

(단위:톤)

구 분	생산량	처 리 현 황					
		상품용	수출	북한보내기	군납	가공용	기타 (도내소비)
'05년산	600,511	446,935	3,337	3,049	135	124,855	22,200
'04년산	536,668	374,285	5,206	8,107	1,526	100,517	47,027
'03년산	596,732	437,660	7,806	7,500	2,028	120,333	21,405
'02년산	738,530	491,240	9,074	4,000	2,118	112,359	119,739 (21,682)
'01년산	532,837	424,498	6,224	6,105	1,823	49,537	44,650

※ '02년산 처리과정상 특이 사항 ⇒ 도내 소비 21,682톤
 - 시장격리 1,9번과 수매 : 7,944톤
 - 상품용 수매, 격리 : 90,113톤

- 크기별 출하 비율(8대 도매시장 상장물량 기준)
 ⇒ '05년산인 경우 7,8번과 등 대과 출하 비율이 예년에 비해 높음

	('05년산)	('04년산)	('03년산)	('01~'02)	('01~ '05)
◆ 3 ~ 5번과	: 37.4%	⇒ 44.5%	⇒ 46.8%	⇒ 37.8%	⇒ 40.1%
◆ 7 ~ 8번과	: 37.1%	⇒ 28.6%	⇒ 25.2%	⇒ 25.8%	⇒ 28.2%

※ 자료 : 출하연합회

□ 출하 현황

- 농협의 계통출하는 유통명령 실시 전까지 70%를 차지하였으나 '03년도 감귤유통조절명령이 실시되면서 취급물량이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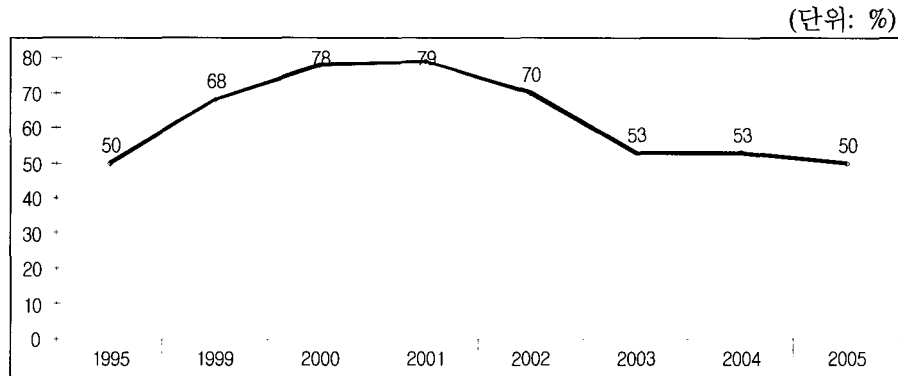
【상품용 감귤 취급현황】

(단위: 톤, %)

구분	'01년산		'02년산		'03년산		'04년산		'05년산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농협	334,737	79	344,018	70	232,808	53	198,410	53	221,367	50
일반	89,761	21	147,222	30	204,852	47	175,875	47	225,568	50
계	424,498	100	491,240	100	437,660	100	374,285	100	446,935	100

(자료 : 제주농협 지역본부 · 제주감귤협회의의 감귤유통처리실태 분석)

상품용 감귤의 계통출하 점유비 변동 추이



○ 시기별 처리 실적 ('05년산)

(단위 : 톤, %)

구분	계	10월	11월	12월	'06.1월	2월	3월이후
물량	446,935	34,425	93,268	114,597	107,458	66,161	31,026
비율	100	8	21	25	24	15	7

- 최근 5년간 감귤의 월별 출하동향을 보면 12월과 익년 1월에 50% 이상 집중 처리되고 있음

【 12월 ~ 익년 1월 출하 비율 】

◆ 연도별	'01년산	'02년산	'03년산	'04년산	'05년산	평균
◆ 구성비(%)	55%	⇒ 54%	⇒ 60%	⇒ 52%	⇒ 49%	⇒ 53.2%

【 노지감귤 시기별 상품 출하량 】

(단위: 톤, %)

구분		'01년산		'02년산		'03년산		'04년산		'05년산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출하량	비율
노지 노년과	10월	41,355	10	47,092	10	29,343	7	36,451	10	34,425	8
	11월	101,035	24	83,363	17	89,676	20	99,881	27	93,268	21
	12월	127,110	30	122,868	25	143,976	33	110,881	29	114,597	25
	소계	269,500	64	253,323	52	262,995	60	247,213	66	242,290	54
노지 익년과	1월	105,233	25	140,954	29	117,358	27	85,875	23	107,458	24
	2월	40,755	9	54,502	11	49,450	11	36,726	10	66,161	15
	3월이후	9,010	2	42,461	8	7,857	2	4,471	1	31,026	7
	소계	154,998	36	237,917	48	174,665	40	127,072	34	204,645	46
합계		424,498	100	491,240	100	437,660	100	374,285	100	446,935	100

(자료 :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 출하시기의 편중 현상은 감귤의 품종 구성에 따른 것이며, 겨울철 과일 시장이 수입과일 등 새로운 경쟁 과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과일간 품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

○ 시장별 출하 현황

- '05년산은 '04년산에 비해 공영도매시장에서 처리하는 비율은 1.2% 감소한 반면 직거래 판매비율은 1.5% 증가함

(단위 :톤,%)

구 분		계	공영도매 시장	농협 공판장	유사도매	직거래	일반 법정
'05년	물량	446,935	257,589	20,329	104,521	62,372	2,124
	비율(a)	100	57.6	4.5	23.4	14.0	0.5
'04년	물량	374,285	220,079	17,840	87,402	46,840	2,124
	비율(b)	100	58.8	4.8	23.3	12.5	0.6
대비 (a-b)		-	△1.2	△0.3	0.1	1.5	△0.1

○ 소비 지역별 처리 현황

- 서울·경지지역에서 42%가 처리되고 있음

(단위: 톤,%)

구 분	출하량	비율	5	10	15	20	25	30
서울	119,446	27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27% of total volume]					
부산	38,769	9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9% of total volume]					
대구	35,132	8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8% of total volume]					
인천	21,844	5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5% of total volume]					
광주	23,290	5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5% of total volume]					
대전	19,453	4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4% of total volume]					
울산	8,932	2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2% of total volume]					
경기	68,585	15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15% of total volume]					
강원	8,552	2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2% of total volume]					
충북	12,593	3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3% of total volume]					
충남	15,036	3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3% of total volume]					
전북	18,122	4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4% of total volume]					
전남	14,370	3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3% of total volume]					
경북	16,514	4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4% of total volume]					
경남	26,297	6	[Horizontal bar chart showing 6% of total volume]					
합계	446,935	100	[Total volume bar chart]					

□ 가격 동향 분석

- 3, 4, 5번과 평균가격은 '04년산 보다 높게 형성

	('05년산)	('04년산)	('03년산)	('01~'02평균)
◆ 3번과 :	13,400원/10Kg	⇒ 12,733	⇒ 9,133	⇒ 5,982
◆ 4번과 :	14,000원/10Kg	⇒ 13,600	⇒ 10,467	⇒ 7,110
◆ 5번과 :	13,800원/10Kg	⇒ 13,400	⇒ 10,267	⇒ 7,196

○ 7,8과 물량 증가 및 저가 형성으로 평균가격 하락

	('05년산)	('04년산)	('03년산)
◆ 8번과 :	8,400원/10Kg	⇒ 9,933	⇒ 6,800
- '05년산 8번과 경락가격 :	4번과 가격의 60% 수준		
- '04년산 8번과 경락가격 :	4번과 가격의 73% 수준		
- '03년산 8번과 경락가격 :	4번과 가격의 65% 수준		

【 연산별 월별 평균경락가격 】

(단위: 원/10kg)

구 분	'01년산	'02년산	'03년산	'04년산	'05년산
10월	7,051	6,539	13,436	12,047	12,764
11월	5,042	5,969	9,062	8,872	11,411
12월	5,251	5,738	7,734	10,284	14,380
1월	7,018	4,787	8,658	16,432	13,332
2월	9,598	4,425	10,720	20,201	8,589
평균	6,356	5,312	9,075	12,609	12,133

※ '06 설명절 전후하여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 급락현상 발생
- 7, 8번과 등 대과가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면서 전체 평균가 하락

□ 선과장 운영 실태

- 도내 총 선과장수 734개소로 60만톤 처리시 연간 817톤(81,700상자 /10kg) 처리하는 수준임.
- 817톤은 시간당 4.5톤 처리능력 선과장에서 1일 8시간 기준인 경우 23일 정도 작업할 물량임
- 선과장 과다로 시설비,유지비가 힘들고 활용도가 떨어져 물류비 절감에 어려움.
- 선과장 대부분은 감귤 작목반이 운영 주체로 작목반 회원간의 상호 투자에 의한 공동 자산으로 되어있어 공동 용자 등 재정적인 관계로 시설확대 자본 투자 및 인위적 통폐합 지남
- 대부분의 농협 직영 및 작목반 선과장에서는 선별사로 고정인력을 고용하거나 작목반원이 순번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품질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상인선과장인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

별하고 있음.

- 선과방식에 있어서도 화염열풍건조 방식 선과기가 70% 수준으로 이를 간접온수방식,진공흡입 자연 건조 송풍방식 등 선과기 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감귤 선과장 현황 】

구 분	형 식 별				출하주체별 보유비율(%)
	자 동	반자동	수 동	계	
농 협	173	190	52	415	57
상 인	30	243	25	298	41
법 인	14	6	1	21	2
계	217	439	78	734	100
구성비(%)	30	60	10	100	

3. 산지유통의 해결과제

□ 개별농가 단위의 출하 시스템

⇒ 각각의 생산자가 서로 경쟁적 관계

- 생산자 각자가 완전 경쟁적인 출하주체로서 감귤의 출하량, 출하시기, 출하처 지정 등 의사결정을 하고
- 이로 인해 개별선별 ⇒ 포장 ⇒ 출하 ⇒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출하량 조절, 출하시기조절, 출하처 조절 등 가격형성에 영향력 발휘가 미흡함

□ 소규모 선과장 문제

⇒ 소비지 시장에 대응한 상품화 및 상품관리 미흡

- 처리규모가 영세하고 드럼식 선별 시스템으로 상품의 선별과 포장등에서 임의적이고, 객관적인 품질 기준 확보하기가 어려워 소비지 시장에서 요구하는 상품화 실현 미흡

□ 출하조절 문제

⇒ 독점적 산지로서 계획적인 출하량 조정 지난

- 과잉생산체제에 돌입하면서 수급 조정을 위해 유통명령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작목반 단위의 영세 선과장 난립 등으로 체계적인 출하 조절에 한계

□ 시장 교섭력 및 시장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력 미흡

- 오랜 관행의 개별출하체제로 인하여 시장교섭력이 부족하고 다양한 소비욕구와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력 약화

□ 품질 등급 평가의 다양성 존재

- 감귤 선별등급이 크기에 의한 규격 선별이 되고 있어 품질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품질등급 기준설정 및 품질에 의한 선별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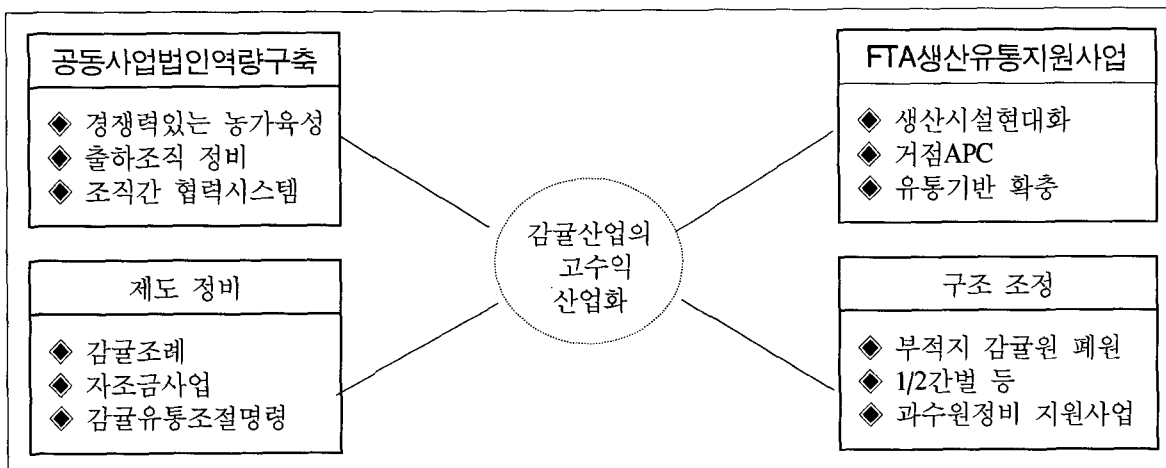
IV. 감귤유통혁신 방안

감귤산업의 비전 ⇒ 고수익산업으로 육성

- ◆ 경쟁가능 농가 중심으로 고품질생산·유통체계 정착
⇒ 개방화시대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화된 감귤농가를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고품질생산기반확충, 기업형 유통체계확립을 통한 고품질감귤의 생산·유통을 실현
- ◆ 거점 APC를 중심으로 산지유통조직 혁신
⇒ 영세작목반 조직 통합등 직영 선과장 계열사업장화
- ◆ 감귤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및 감귤산업의 구조조정
⇒ 탈농 감귤농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원



추진 전략



1.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가 인식 전환

【시장여건의 변화】

◆ 소비자의 농산물 소비구조 변화

- 식품의 안정성 · 기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기호 변화
- 외식소비가 확산되면서 가정내에서 소비하는 식품의 양 감소
- 핵가족화, 여성취업자 증가로 소포장 수요 확대
- 간편식품, 전처리농산물 및 가공 수요 증가

◆ 대형할인점의 농산물 산지 직구입 확대 등 시장지배력 증대

- 상위 4개 할인점(Big4)의 과점화 심화 및 영향력 확대

- ▶ 이마트 : 2008년까지 국내 점포수 100개 돌파
- ▶ 홈플러스 : 부산아람마트 인수 ('06.2월), '08년까지 130여개

- 농산물의 안정적 조달과 구매단가 절감을 위해 산지직거래 증대
- ◆ 공판장 거래제도가 종전 경매중심에서 정가수의매매와 매수 판매로 확대
- 농안법 개정 : 정가수의매매 확대, 도매시장법인 매취 가능, 전자상거래 도입 등
- ◆ 유통경로 다원화로 전자상거래 비중의 확대 지속
- ◆ 무선인식(RFID) 기술, 전자성명 시스템 등 유통업계 신정보기술 (IT) 도입 확산

□ 시장이 요구하는 상품 생산

- 농가는 감귤의 품질을 공급자 관점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인식하는 품질마인드를 갖고
- 완숙과 수확, 출하
- 당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품종 갱신 실천
- 간벌, 전정, 방풍수 정비, 시비법 개선, 타이백 재배, 높은이랑 재배 등 당도를 높일 수 있는 재배 방법 도입 및 실천
- 안전농산물 출하 체계 구축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실천 등

□ 비규격품 자율적 시장 격리 등 상품력 제고

- 수확 · 선별 · 포장 · 출하 과정을 상품제조과정으로 인식하여 상품 품질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정신적 무장

□ 시책추진 사업에 적극적 동참

- 1/2간벌, 열매숙기, 비상품 시장격리, 유통명령제 이행 등 고품질 감귤 생산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자율적 분위기 확산

2. 산지조직 규모화

- 소규모 작목반 자율적 통폐합 등 산지출하 조직 규모화

【 작목반 여건】

- ◆ 작목반 조직 자체 처리비율 : 68%
- ◆ 작목반 선과장 평균 규모 : 개소당 112평

- 시장이 요구하는 균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출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조직 규모화
- 작목반 자율 통·폐합 유도 : 568개반 ⇒ 200개반(1개마을 1작목반 체제)

작목반 재정비 및 통합방안 연구용역 추진 : '06. 5월

- ◆ 핵심과제
 - 작목반의 기능과 실태 진단 및 통폐합에 따른 구성원 의견 분석
 - 통폐합에 따른 농가, 작목반, 농협의 역할정립
 - 통폐합에 따른 산지유통체계 정립방안
 - 거점APC의 계열화 구축 및 통폐합 실행 방안
- ◆ 용역기간 : '06. 5 ~ 12월말
- ◆ 용역수행기관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3. 유통시설 현대화

- 산지유통시설건립을 유통 SOC 라는 관점에서 행정 지원 확대
 - 지금까지는 정부 정책이 농업생산 기반조성 부문에 집중 투자되었다면 이제는 선과기 시설 교체 등 유통시설 현대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유통시설 투자에 행정적 지원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
 - 유통시설 부지 확보시 각종 세금 감면 등 유인책 마련
 -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농림사업 등 정부 투융자사업 제도개선
 - 국고 지원 비율 확대 : 지방비 부담 축소
- 농협 직영선과장 구조개선사업 도입

- 농산물 유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산지의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협 직영선과장을 현대화 시설로 규모화하고 소규모 영세 선과장 통합이 시급한 당면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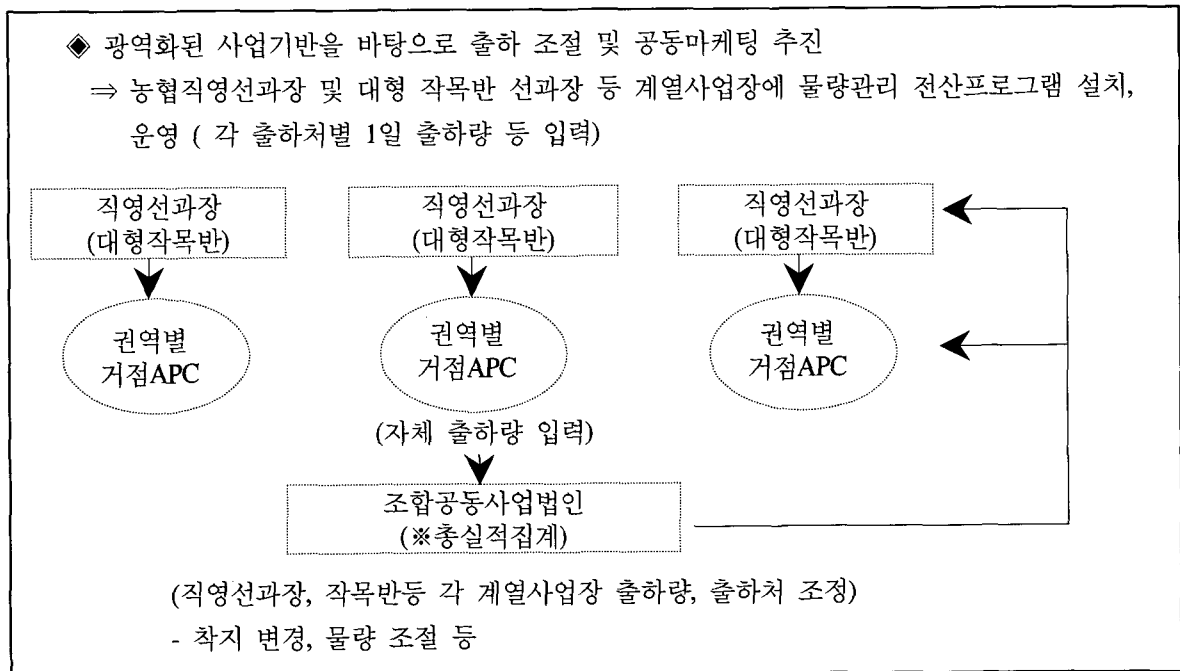
⇒ FTA 기금 과수지원사업은 거점APC 사업만을 지원하고 있어 각 농협의 유통시설(APC 등 산지유통센터)을 비파괴 선별기 도입 등 시설 현대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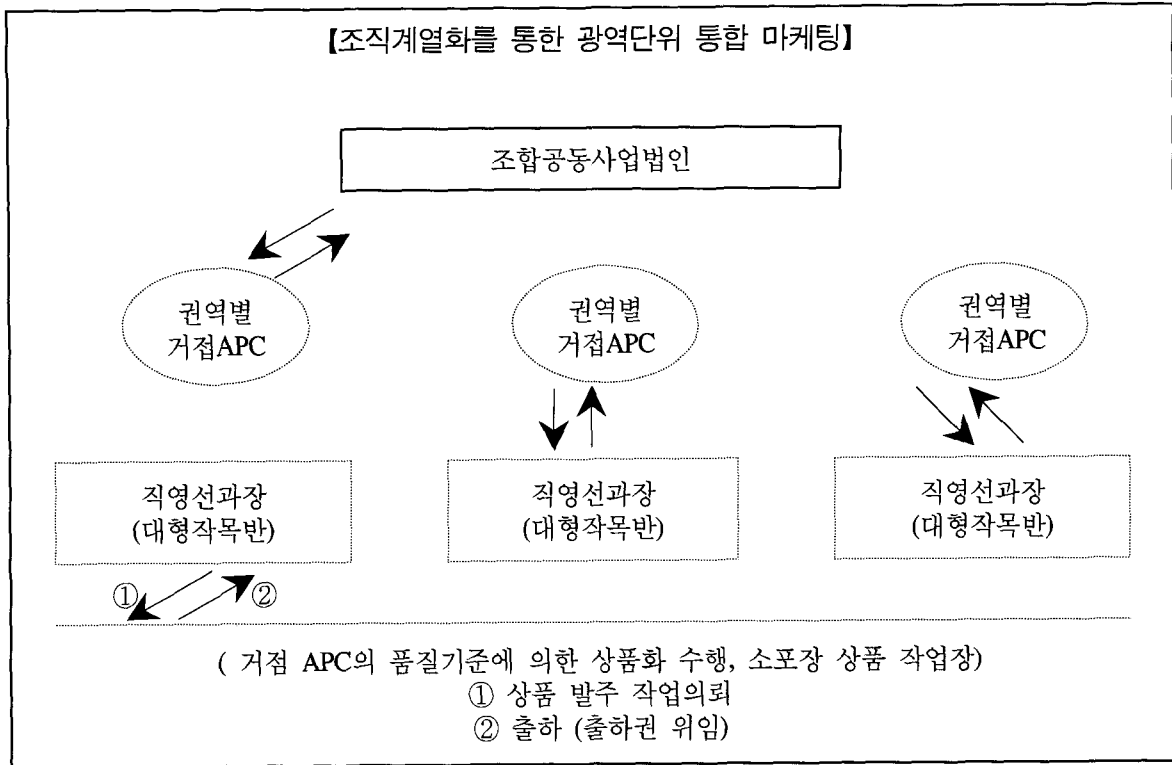
- 감귤주산지 농협 직영선과장 시설 장비 지원사업 도입 필요
 - 처리규모 : 1만톤 내외 ⇒ 거점 APC의 계열 사업장

□ 권역별 거점 APC 건립

- 계획 : ('06) 1개소 ⇒ ('07) 3개소 ⇒ (2010년) 9개소
- 운영전략
 - 거점 APC를 중심으로 농협 직영선과장 및 규모화된 선과장 계열화 추진
 - 규격화된 고품질 감귤의 출하 및 유통조절기능 강화

거점 APC 운영전략 및 사업 계열화 방안





4. 가공사업 활성화

- ◆ 사과, 배 등 모든 농산물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0 ~ 20%정도 비규격 상품 발생
- ◆ 사과, 배 등 타과일은 과실의 크기가 큰 것이 상품으로 우대 하지만 감귤은 크기가 횡경 71mm 이상인 것을 비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소비자들의 과일수요에 대한 품질 차별화 현상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품감귤을 소비시장으로 격리될 때 수급안정과 적정 가격이 유지됨

새로운 감귤 가공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

- 감귤 주스 및 초코렛 생산 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나 기능성 제품생산을 위한 2차 가공 인프라가 활성화 되어야 함

가공제품 연구개발 사업 지원 확대

5. 자조금 사업확대로 자율적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강화

감귤자조금사업 추진 현황

○ 자조금 조성방법

- 노지감귤 계통출하금액의 0.5% 해당액을 농가와 조합이 공동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협이 출연하고 있음

○ 연도별 자조금 조성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 계획
자체 조성금	809	1,676	721	1,000
국고 보조금	809	1,000	713	1,000
계	1,618	2,676	1,434	2,000

< 주요 추진 사업 >

- 소비촉진 홍보 및 시장개척활동사업
- TV를 통한 감귤의 기능성 홍보
- 감귤축제행사 및 감귤마라톤 행사 지원
- 교육사업, 1,9번과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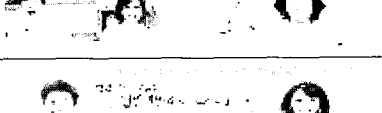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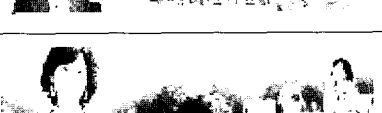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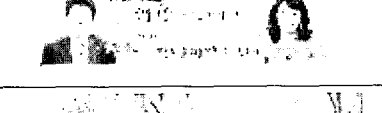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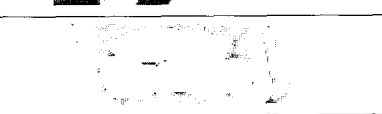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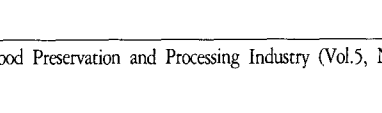

□ 감귤 자조금 조성 확대

- 자조금 조성 참여 농가 확대 ⇒ 무임승차 농가 최대한 축소
 - (현행) 농협 계통출하 농가
 - ⇒ (개선)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인 협의회 참여 유도
- 자조금 조성 품목 확대
 - (현행) 노지감귤 위주 ⇒ (개선) 하우스 감귤, 비가림 월동감귤 한라봉 등 품목 추가
- 가공용 감귤 수매업체도 이익금 중 일부를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자조금 출연이 바람직 함

□ 해외 마케팅 추진 활동 강화

- 해외 식품 박람회 참여 등 시장개척활동 강화
- 수확후 관리기술 개발 등 수출과정에서의 부패 현상 최소화방안 마련
- 수출 물류비 지원 현실화
- 기지정 수출단지 활성화 : 6개소

감귤자조금을 통한 TV 방송프로 홍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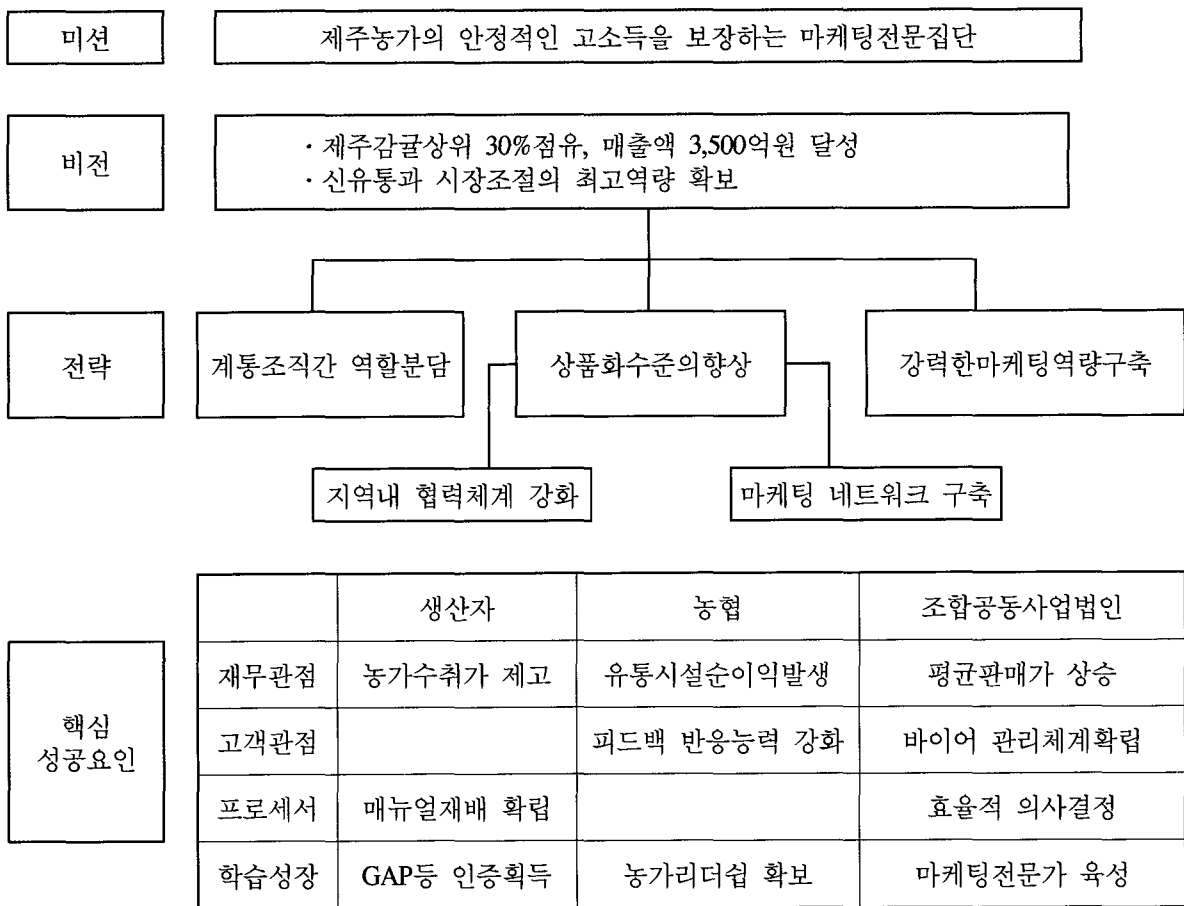
방송일시	프 로 그 램 명	비 고
'05.11.05(토) 10:30~11:00	SBS 잘먹고 잘사는법 "티에리·필립의 팔도 유람기"	
'05.11.12(토) 09:00~09:30	SBS 잘먹고 잘사는법 "건강음식 大백과"	
'05.11.15(화) 07:30~08:30	SBS 모닝와이드 "과일건강"	
'05.11.21(화) 18:00~	SBS 생방송 투데이 "우리농산물 대탐험"	
'05.11.24(목) 10:30~	MBC 정보토크 팔방미인 "생활의 발견 X화일"	
'05.12.01(목) 09:00~09:30	SBS 웰빙 맛 사냥	
'05.12.03(토) 07:30~	SBS 생방송 토요일모닝와이드 "제주감귤 제2전성시대"	
'05.12.06(화) 09:45~	MBC 정보토크 팔방미인 "굴 그 감춰진 신비의 효능"	
'05.12.06(화) 14:10~	SBS 고향이 보인다 "감귤이래서 좋다"	
'05.12.11(일) 22:00~23:00	KBS2 비타민 "위대한 밥상"	
'05.12.12(월) 10:00~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5. 12. 5 ~	SBS 맛집 멋집 "지역특산품코너"	
'06. 1. 23(월) 09:00~	SBS 웰빙 맛사냥 "탱글탱글 우리는 감귤귀족 삼총사"	
'06. 1. 25(수) 17:15~	KBS 썩썩 어린이 경제나라 "겨울대표과일-제주감귤"	
'06.3.18(토) 09:00 ~ 09:30	SBS 잘먹고 잘사는 법 "한라봉 홍보"	

6. 농협의 유통사업역량 강화

□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한 마케팅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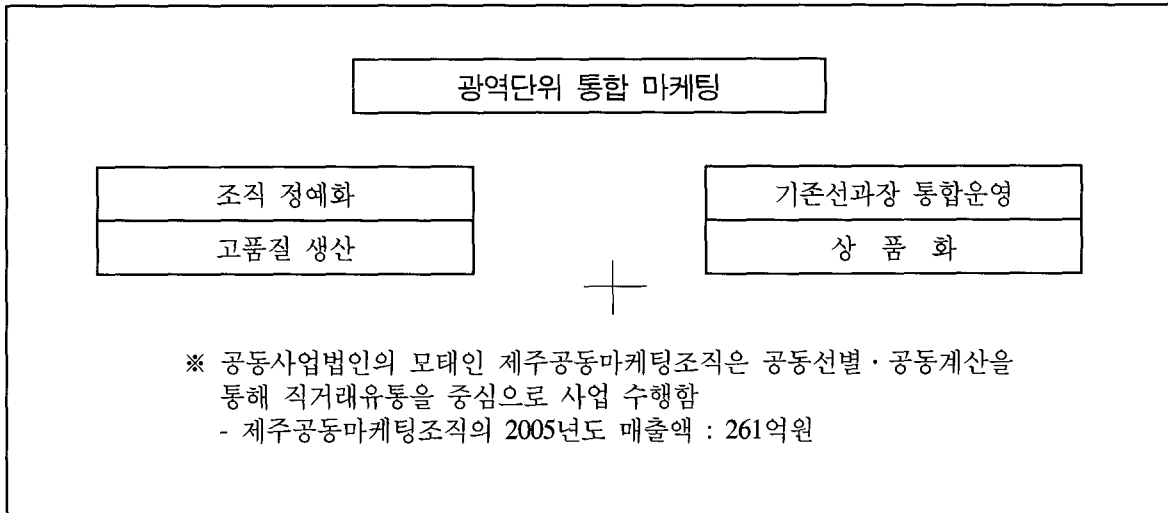
-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인가 : '06. 8. 29 (농림부)
 - 참여 농협 : 도내 19개 지역농협
-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마케팅 전문집단" 이라는 미션을 중심으로 개별농협의 유통사업 역량을 결집 시켜 광역단위의 공동마케팅을 수행하여 유통의 경쟁력을 확보하려 함
 - 계통조직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 상품화수준의 향상, 책임경영체제 도입,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전략을 수행하고
 - 장기적으로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업조직과 역량을 강화하여 생산·유통의 일 관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 제주공동사업법인의 비전/전략 】



□ 광역단위 통합 마케팅 수행

- 거점 APC (조합공동사업법인)
 - ⇒ 농협 직영선과장에 상품 수발주 처리
 - 유통업체 바이어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



○ 마케팅 강화를 위한 브랜드 육성

- 대표 브랜드 Brand 육성 : 불로초, 굴림원, 한라라이 등
- ⇒ 회원농협 직영 선과장은 동일한 품질기준에 의한 공동작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대형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업무제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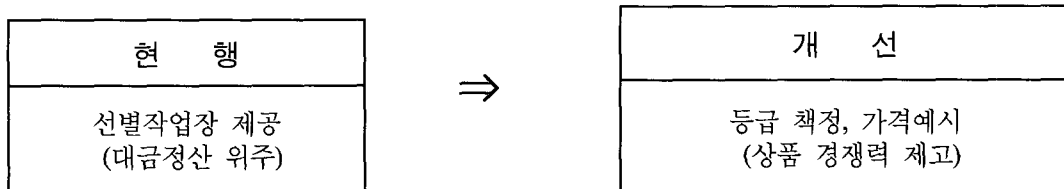
- 업무협약체결 : CJ푸드머스, 에버랜드, 신세계, 서원유통 등

□ 판매사업 방식 개선

: 현행 수탁사업 방식 탈피 ⇒ 가격예시제 도입, 고품질 확보

- 당·산도, 착색 상태를 표본 추출하여 품질등급 책정, 가격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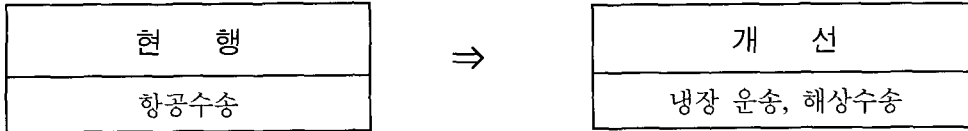
【 마케팅 경쟁력 제고 : 가격지지, 출하 유도 】



□ 물류 개선사업 주도적 추진

- 하우스 감귤 등 항공수송 감귤 냉장운송시스템 전환

⇒ 물류비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물류비 절감 효과】

(단위: 원/5Kg)

품 목	항공운송	냉장 운송	차 액	절감율
하우스감귤	1,300	660	640	49%

○ 상, 하차 작업 기계화로 물류선진화 구현



※ 파렛트 단위의 일관된 수·배송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영도매시장의 출하 여건 개선 필요

□ 중앙회의 사업지원 역량 강화

- 중앙회의 도매사업 수행능력 혁신적 개선
 - '산지 - 소비지' 접속자 역할 강화로 농산물 유통 주도권 확보
 - 민간 유통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중소기업체와의 체인화
- 조합 경제사업 수행역량 강화 지원
 - 연합마케팅사업 참여 농협등 산지유통 혁신농협 지원 확대
- 소비지 유통시설 확대
-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 도매사업 본부

V. 맺 음 말

- 작은 군소 부족으로 거대 몽골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은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 남을 것이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 세계화·개방화라는 거센 파고가 몰려 오고 소비지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 데도 감귤 유통의 근간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감귤유통이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나 소비지 유통여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감귤산업의 문제점은 이미 대부분 노정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문제의 핵심은 대안의 실행이며, 유통상의 문제는 실타래를 한올 한올 풀듯이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유통혁신의 방안은 남이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산지유통 주체인 농가, 생산자단체(농·감협 등),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갔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 질 때 유통혁신 시스템이 정립 되리라 여겨집니다.
- 따라서 농가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구조조정등 자구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고 소비지시장 변화에 부응한 定時, 定量, 定質, 定價의 출하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선과장 등 유통시설의 현대화, 규모화가 촉진 되어야 하겠습니까.
- 감귤산업이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시 되어온 유통혁신방안에 대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유통관련 모든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까.